

■ 심의총평

무용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19년도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 무용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서류) : 2019년 8월 22일(목), 10:00~20:00 / 이음센터 세미나실 1
 - 2차(인터뷰) : 2019년 9월 5일(목), 10:30~20:00 / 예술가의집 위원회의실

2019년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사업 무용 분야에는 유망단체(설립연한 5년 미만) 26개 단체와 중견단체(설립연한 5년 이상) 47개 단체를 합한 총 73개 단체가 신청했다. 무용 장르별 분포는 한국무용 16개 단체(21.9%), 발레 14개 단체(19.2%), 현대무용 36개 단체(49.3%), 융복합 7개 단체(9.6%)로서 현대무용의 신청 비율이 많았다.

공연예술 중장기창작지원사업이 기존 일회성에 그친 지원제도에 대한 예술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사업인 만큼 역량있는 단체들이 다수 신청하여 계획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았다. 따라서 심의에서는 그들 중 본 중장기 창작지원사업의 취지에 최대한 근접하여 수행할 만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했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2차 인터뷰 심의를 진행할 15개 단체를 선정하였고, 2차 인터뷰 심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최종 8개 단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천시티발레단(발레/중견/지역), 안은미컴퍼니(현대무용/중견), 신은주무용단(한국무용/중견/지역), 무버(현대무용/중견), 리브레호벤(현대무용/유망),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현대무용/중견), 고블린파티(현대무용/유망), 정은혜민족무용단(한국무용/중견/지역)

선정된 8개 단체를 무용 장르별로 구분하면 한국무용 2개 단체, 발레 1개 단체, 현대무용 5개 단체이다. 단체 설립시기별로는 유망단체 2곳, 중견단체 6곳이며, 활동 거점별로는 3곳이 인천, 대전, 부산 지역을 중심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정된 단체의 경우, 각 신청단체별 예산의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단체의 신청액보다는 다소 감액을 했으나, 사업 실행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배정하고자 노력했다.

공연예술중장기 창작지원사업은 일회성 행사 지원사업이 아닌 다년간 지원사업이다. 예술단체가 단기적인 작품 제작의 부담에서 벗어나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수준 높은 작품의 창·제작 역량을 축적하고 단체 운영의 안정적 기반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된 사항은, 3년간 지원을 통해 단체가 창·제작 역량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가와 안정적인 조직 구성을 통해 단

체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마련이 가능한가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예술 단체로서 확실한 자기 정체성과 운영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정체성을 사업계획서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두 번째,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년간 체계적인 개발 과정이 필요한 공연예술 창작 프로젝트인 만큼 단계적으로 개발되는 ‘과정 중심’의 창작 프로젝트에 가중치를 두었다. 그러나 본 사업이 단체의 자율적인 중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목적이므로 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레퍼토리 확보는 필수 요소이므로, 신작 창작 뿐 만 아니라 기존 작품의 개작을 통한 레퍼토리 확보도 포함시켰다. 다만, 레퍼토리 작업을 통해 기존 작품에 비해 얼마나 질적으로 차별성을 갖고 발전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지를 고려했다.

세 번째,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국내 무용계에 인사이트를 주어 무용 발전을 선도하고 본 지원을 통해 무용 인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를 고려했다. 때문에 올해 무용 장르 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라도 기존의 활동에 비해 이번 중장기 창작프로젝트가 차별성과 발전가능성을 가질 경우 사업의 파급력을 인정했다.

점수 배점 방식은, 상기 고려 사항 들을 기준하여 신청 단체별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 종합토론 후 각자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점수를 배점했다. 각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한 결과 상위 8개의 단체가 선정됐다. 합산 점수가 동일할 경우 문예진흥기금 일반규정에 따라 유망단체 우선, 지역 활동 단체 우선, 창작 프로젝트 우선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최종 선정된 8개의 단체는 공통적으로 상기 고려 사항들을 최대한 충족한 단체들이다. 그 가운데 단체별로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데 작용했다.

인천시티발레단, 신은주무용단, 정은혜민족무용단은 각각 인천, 부산, 대전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무용단으로서 지역의 무용단이 본 지원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질 경우 지역 무용 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고려됐다.

사업의 내용 측면에서, ‘인천시티발레단’은 한국 전래동화 3부작(콩쥐팥쥐, 심청, 춘향)을 창작발레화하여, 무용 세 장르 중 창작 기반이 가장 취약한 발레에서 한국적 창작발레의 탄생을 기대하게 했다. ‘신은주 무용단’은 ‘인간의 삶’이라는 주제를 삶의 거점 지역인 ‘부산의 버려진 공간’과 함께 찾으려는 진정성과, 한국무용이 주축이 되어 부산 민간 현대무용단과의 협업 통해 무용계 동반 성장의 길을 모색한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은혜민족무용단’은 그동안 꾸준히 보여준 전통 ‘학춤’에 대한 일관성 있는 탐구 정신, ‘학춤’ 원형에 대한 이해, 문화 원형에 기술을 접목시켜 학춤의 현대화를 체계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평가를 받았다.

단체의 정체성이 확실한 ‘안은미컴퍼니’는 안무가가 꾸준히 추진해온 ‘세대별 몸’에 대한 탐구를 동아시아로 확장함에 있어서 중장기 비전과 실행계획이 연구, 공연, 교육,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과, ‘안은미’ 브랜드로 인한 국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버’는 영화와 공연이 합쳐지는 형식의 ‘라이브 필름 퍼포먼스’를 중장기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공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댄스필름’이 보편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와서 ‘댄스필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관심을 반영하듯 이번 사업의 신청 단체들 중에서도 ‘댄스필름’을 프로젝트에 포함시킨 단체들이 있는 가운데 ‘무버’의 프로젝트가 선정된 이유는, ‘댄스필름’의 차원을 넘어 ‘독립된 영화’와 ‘공연’이 각각 다른 플랫폼에서 독립체이자 협업체로 역할을 하면서 공연과 영화가 구현되는 새로운 방식과 이를 통한 춤 유통 공간의 확대를 기대하게 하기 때문이다.

‘리브레호벤’은 서브컬처로 인식되는 스트리트문화를 통해 새로운 컨템포러리 댄스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단체가 지향해온 예술적 방향을 두 건의 국제 협업을 통해 3년 동안 확장하여 상호작용하는 레퍼토리 공연으로 완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설득력이 있었다.

‘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는 정형화된 무대를 벗어나 자연-도시-집이라는 다양한 공간에서 다채로운 형태로 예술적 영감을 얻고 관객들을 만나는 세 건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공간의 변화가 주는 작업 과정의 다변화를 통해 현대무용의 구현 능력과 관객 소통 방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블린파티’는 <3G-지역, 지구, 지속>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무용단이 건강한 무용생태계 구축 위한 공익적 개념의 사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지역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운영 모델을 제시하면서 지역협업의 결과물로 다양한 채널의 국제 교류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설득력 있었다.

이번 공연예술중장기 창작지원사업에는 역량있는 단체들이 다수 신청하여 사업의 비전과 내용, 3개년 프로세스, 단체의 실행 역량 등은 비교적 수준이 높았으며, 예산계획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비교적 합리적이었다. 다만, 신청 단체 대부분이 다른 창작자나 무대 스태프 사례에 비해 ‘출연자’ 사례를 적게 책정하거나 연습비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건강한 무용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안이며, 향후 사업 수행 시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기를 기대한다.

■ 심의결과

단체명 가나다 순 (단위 : 원)

연번	단체명	대표자	지원신청사업명	지원결정액
1	고블린파티	지경민	고블린파티 3G 프로젝트 (지역, 지구, 지속)	90,000,000
2	리브레호벤	양성식	<Cacophony>, <A Meeting Hands>	100,000,000
3	무버	김설진	무브 온	90,000,000
4	사)정은혜 민족무용단	김경원	2019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100,000,000
5	신은주무용단	신은주	내안의 물고기	150,000,000
6	안은미컴퍼니	안은미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_ 안은미컴퍼니	189,700,000
7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장경민	Artful Dance - 예술로서의 여행, 예술로의 여행	110,000,000
8	인천시티 발레단	박태희	modernization of classic 3색 발레 프로젝트	170,000,000